



인터넷 이용과 정보격차 접근, 활용, 참여를 중심으로*

민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ymin@korea.ac.kr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 내부의 정보격차 현상을 접근성(access), 활용성(literacy) 및 참여(participation)의 측면에서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 격차 구조를 성, 연령, 교육 및 소득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간의 상호 관계를 탐색하였다. 전국 규모의 온라인 조사 결과(N = 1,420), 첫째 인터넷 이용자의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은 계층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여전히 교육과 소득에 따른 격차가 존재했다. 둘째, 격차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부문은 인터넷 활용의 역량과 수준에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고연령 계층의 활용성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셋째, 참여 부문은 인터넷을 매개로 정보 생산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층을 막론하고 이러한 참여적 실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사이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접근성은 인터넷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고, 활용성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 활동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인터넷 이용 • 정보격차 • 접근성 • 활용성 • 참여

*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보고서(2008-01)의 데이터와 일부 이론적 내용에 바탕을 두었음.

1. 서론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계층, 성별, 연령 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보지식기술의 확산에 따라 그 의미가 역동적으로 변동해 왔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정보지식기술의 초기 도입기에는 정보인프라에 대한 접근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격차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지만 이러한 양태는 도약기와 포화기로 진전할수록 변화하게 된다(Barzilai-Nahon, 2006; Hargittai, 2002; Hargittai & Hinnant, 2008). 구체적으로 도약기에는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격차가 중요한데, 이는 접근 격차와 달리 사용 여부에 따른 격차를 말하며 양적인 정보 활용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1차적 정보격차(primary divide)라 지칭할 수 있다. 포화기에는 소위 2차적 정보격차(secondary divide)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정보 활용에서의 질적 격차를 의미한다(Hargittai, 2002). 따라서 정보지식기술이 급속히 확산되어 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정보격차의 쟁점이 접근의 차원에서 정보의 이용 능력과 질적 수준의 문제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김문조 · 김종길, 2002).

정보격차에 대한 낙관론이 예측해 왔던 것처럼 접근에서의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는 기존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에서의 불평등 구조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거나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9 정보격차 · 정보문화 백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 국민과 대표적인 취약 계층(장애인, 장 · 노년층, 농어민, 저소득층) 사이의 정보격차지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b). 정보격차지수란 접근 여부나 정도뿐 아니라 이용 역량과 양 · 질적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평가 체계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격차의 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 접근성 격차의 감소 추세가 가장 뚜렷한 가운데 질적 격차의 감소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기회지수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기회 제공에서 최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이는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 정책의 일정한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체 농어촌 가구 수 대비 약 98%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이 구축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포화기에 접근한 정보지식기술로서의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정책의 큰 방향은 소외 계층과 일반 평균 국민과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한층 복잡하게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의 현황을 밝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는 정보격차는 사이버 공간 참여자들 사이의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탐색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진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서 2차적 혹은 3차적 정보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의 주요 원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타이와 히넨트(Hargittai & Hinnant, 2008) 역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인터넷의 사회 전체적인 파급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매체를 이용하는 능력이나 그것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에 대한 탐구는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하지타이(Hargittai, 2010)는 인터넷의 이용률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점에서도 ‘격차’ 혹은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접근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서의 정보격차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용 격차(usage divide)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진흥원(2008)이 공동 실시한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12월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6.3%로 나타났고 절대 이용자수는 3,482만 명에 달했다. 10대 이상 인구에 제한해서 이용률을 측정한다면 그 비율은 한층 증

가할 것이다. 특히 이용률은 10대에서 99.8%, 20대에서 99.3%, 30대에서 96.5% 등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실질적으로 10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태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거의 100%가 자료·정보검색이나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교육·학습(34.5%), 동호회 활동(36.5%), 전자민원(31.5%), 상품·서비스 판매(10.8%), 구직(9.4%) 등을 목적으로 한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용석·윤선희·이원섭·안계현, 2006).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 이용의 범위나 그 다양성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인터넷 이용 인구 내부에 존재하는 격차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콘텐츠 및 서비스가 유료화 되면서 인터넷이 단순한 접근과 이용의 대상을 넘어 소비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황진구·유지열, 2007). 이는 경제적 격차가 1차적인 정보격차보다 2차적 정보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급속히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사회적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보격차를 ‘접근’의 문제로부터 ‘양적·질적 활용’ 그리고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참여’의 문제로 확장시켜 인터넷 이용자 내부의 격차 구조 혹은 불평등 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접근성을 넘어 이용 혹은 참여 격차 등의 개념을 통해 정보격차의 새로운 국면을 탐색해 왔으나(Hargittai, 2002; Hargittai & Hinnant, 2008; Hargittai & Walejko, 2008), 접근, 활용, 그리고 참여로 정보격차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이들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적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넘어 특정한 집단 내부에서 형성되는 정보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정보지식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인터넷 이용자 집단 내부의 불평등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정보격차 요인들인 성별, 연령, 교육 및 경제적 수준

이 세 측면에서의 불균형 구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수준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접근, 활용, 그리고 참여라는 세 개념을 통해 정보 네트워크 이용의 물리적·환경적 토대, 실질적 활용 능력과 정도,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 이용을 통한 효과와 결과까지 포괄함으로써 보다 총체적으로 정보격차 현상을 이해하고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2. 문헌 검토

1) 정보격차의 정의와 원인

컴파인(Compaine, 2001)은 정보격차를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했다. 정보화의 최우선 조건은 정보기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며, 20세기 후반에 상용화된 인터넷의 등장은 정보접근성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가장 근본적인 형태의 정보격차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보지식의 네트워크, 즉 인터넷에서 소외되는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뿐 아니라 교육, 엔터테인먼트, 사회적 참여 등의 기회까지 상실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정보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황진구·유지열, 2007). 이처럼 정보격차는 정보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자체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 문제를 지칭하며(강진숙, 2002), 정보 네트워크로부터의 소외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 즉 경제, 사회, 문화자본에서의 불이익을 포괄적으로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 혹은 한 사회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사회적 함의는 매우 크다(Castells, 2000; Jung, Qiu & Kim, 2001).

정보격차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인 지식격차가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Tichenor, Donohue & Olien, 1970). 지식격차가설은 정보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정보화의 부작용 및 그 사회적 함의를 제기했다. 최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 수준에 따른 정보지식격차는 개인의 동기화 수준이나 관여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출되고 있지만(Kwak, 1999), 경제적 조건, 특히 소득 수준이 접근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인터넷의 확산 역시 기존의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Livingstone & Helsper, 2007). 이는 인터넷 이용에서의 격차 역시 기존 사회 계층에서의 불평등 구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디지털 환경의 상업화가 가속화될수록 경제적 지불 능력이 인터넷 정보 이용의 양과 질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경제적 지위 이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도 정보격차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Norris, 2001). 연령이나 세대에 따른 격차는 다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Kiesler, Zdaniuk, Lundmark & Kraut, 2000; Livingstone, 2003), 일반적으로 온라인 기술(online skills)은 연령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며 청소년 세대 및 20대와 다른 세대들 사이에는 정보 생산 활동(content creating activities)의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Jones & Fox, 2009).

성별 격차 역시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었는데 특히 여성의 정보활용능력과 정보화 의식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김영미, 2001).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성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이용 격차(usage gap)는 존재한다는 것이다(Hargittai & Shafer, 2006). 가장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인 대학생 집단에서도 성별 격차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웹을 통한 정보 생산 활동에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들 사이의 간극이 존재했다(Hargittai & Walejko, 2008).

강진숙(2002)은 정보격차의 원인을 크게 접근과 이용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경제적 조건은 여전히 접근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며 문화적 조건, 특히 교육 수준은 정보의 이용과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언어구사력, 정보탐색과 이해력 및 통합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디마지오 등(DiMaggio, Hargittai, Celeste & Shafer, 2004)에 따르면 이용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인터넷 활용 유형(type of activities)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건강, 재정, 직업, 뉴스와 관련된 인터넷 이용, 즉 자본향상활동(capital-enhancing activities)이 활발한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게임, 도박, 오락 등을 위한 여가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인터넷 이용이 가장 활발한 20대 초반 이용자 집단에서도 발견되었다(Hargittai & Hinnant, 2008).

성, 지역, 세대, 인종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조건은 각종 콘텐츠 및 서비스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각 사회적 집단의 소수 계층, 즉 여성, 농어민, 중장년층, 소수 인종 등에게 유용하고 적합한 콘텐츠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면화된 정보격차의 원인을 탐색하는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실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Selwyn, 2004). 또한 정보격차의 개념적 의미가 확장되고 접근성 외 정보화의 영역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주요 격차 요인들이 접근성 이외의 다른 차원에서 정보화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는 어떤 요인들과 가장 큰 상관성을 보이는지가 본 연구의 주된 연구문제의 하나로 설정될 것이다.

2) 정보격차의 하위 차원: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한편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격차의 확장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정보격차의 유형을 구분하거나 그 세부 차원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무엇보다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서진완(2000)은 이를 필요한 정보를 인식한 이후 최종적으로 정보를 활용하기까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에 문제해결능력, 문제인식능력, 정보탐색능력, 정보수집능력, 정보평가능력, 정보활용능력, IT 이용능력, 컴퓨터 이용능력, 네트워크 이용능력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격차는 접근성뿐 아니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조와 김종길(2002)은 정보격차를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접근성, 활용성 및 수용성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격차는 기회격차, 활용격차, 수용격차로 나누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누가 정보매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가”와 “누가 정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는지” 등이 정보격차가 포괄하는 쟁점들이다. 기회격차는 접근성의 문제인데, 이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경제 자본이며 하드웨어에 대한 조작 기술의 정도가 그 관건이 된다. 취약계층은 소위 컴맹이라 불리며 정책의 주된 방향은 하드웨어의 확충과 보급, 그것에 대한 조작능력을 훈련하는 것이 된다. 반면 활용 격차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격차이며, 단순한 이용량을 넘어 그 이용의 범위와 폭이 관건이 된다. 취약계층은 소위 넷맹이라 불리며 정책방향은 활용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보급과 그에 대한 체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3유형의 정보격차인 수용격차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넘어 그것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향유할 수 있는가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잘 이용하는가의 문제이며 성숙한 네티즌을 그 이념형으로 한다. 정책 담당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

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넘어, 바람직한 규범, 윤리, 시민의식을 체화하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박해광(2003) 역시 정보격차에 대한 기존의 지표를 확장하여, 소유와 이용 두 측면에서의 격차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컴퓨터 소유 등 정보기기 접근에서보다 어떻게 이용하는가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국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셀윈(Selwyn, 2004)은 이분법적인 접근을 넘어 위계적인 접근(hierarchical approach)을 통해 정보접근성과 정보의 이용, 그리고 그 결과를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타이(Hargittai, 2002)는 2차적 정보격차 개념을 논의하면서 인터넷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획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연령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른 격차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디마지오와 하지타이(DiMaggio & Hargittai, 2001)도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기술적인 의미에서만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그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다. 인터넷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 등 관련 집단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급속도로 재형성되고 재구축되는 기술과 서비스의 총체이기 때문에, 격차란 온라인 이용인구 내부의 다양한 측면(예, 설비, 기술, 자율성, 사용 범위 등)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과 동료들(Jung, Qui & Kim, 2001)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한 후 일상적인 이용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 불균형(multidimensional disparities)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ICI(Internet Connectedness Index)를 개발하고, 소득, 성,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양상을 고찰하였다. 접근과 비접근이나 이용 시간을 비교하는데에 주력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이용자와 기술 간의 다층적이고 맥락적인 관계(multilevel and contextual relationship)를 측정하기 위해, ICI는 인터넷 이용의 시공간적 범위, 활동과 목표의 다양성,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의존도 등을 포괄하였다.

하지타이와 힌넨트(Hargittai & Hinnant, 2008)는 정보격차의 가장

주된 이슈를 접근성과 능력의 문제로 바라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의 자율성(autonomy in Internet use), 인터넷 이용기술(online skills), 그리고 자본향상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 젊은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의 차별화된 수준을 탐색하였다. 이 중 인터넷 자율성은 기존의 접근성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지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인터넷 이용 기술은 이미지 파일(jpg), 프레임(frames), 선호도 설정(preference setting), 뉴스 그룹(news groups), 피디에프(pdf)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본향상활동은 국내의 뉴스, 대통령 선거, 건강과 재정, 정부 활동, 각종 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관련된 사이트들을 방문한 빈도로 측정되었다.

한편 하지타이와 왈레이코(Hargittai & Walejko, 2008)는 접근성이나 온라인 기술과 다른 차원으로 '참여 격차(participation divide)'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때 참여는 주로 정보 생산과 공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악, 사진, 영화나 동영상, 소설이나 시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활동을 '참여'라 명명하였다. 코레아(Correa, 2010)는 이 개념을 더 확장하여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 블로그에 글 올리기, 채팅이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기, 뉴스 기사에 댓글 달기, 사진 올리기,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이용하기, 음악·동영상·사진·글 재가공하기, 지역 소식 전하기, 블로그 제작 및 운영하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보격차는 접근의 차원을 넘어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제 활용 정도의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선행 연구가 적시했듯이, 정보격차의 의미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획득하는 다양한 효과 혹은 결과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Selwyn, 2004). 앞서 논의했듯이, 정보격차는 정보 네트워킹으로부터의 '소외'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등에서의 불이익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Castells, 2000; Jung, Qiu & Kim, 2001).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선행 연구들이 제안한 ‘참여’라는 개념에 착안하여 이를 정보격차의 또 다른 차원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소비자의 역할을 넘어 ‘생산자’로서 얼마나 활발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가와 인터넷을 매개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네트워킹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는지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과 혹은 효과와 관련된 차원이며, 김문조와 김종길(2002)이 제3유형의 정보격차로 지칭한 정보의 수용 및 실천의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된다. 선행 연구들은 ‘참여’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 생산 활동이라 주로 개념화해 왔으나(Correa, 2010; Hargittai, 2010; Hargittai & Walejko, 2008), 본 연구에서는 정보 생산자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정치적 연계 활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에서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라는 정보격차의 세 하위 차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1) 접근성(digital access)

접근성과 관련된 불평등은 주로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접근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접근성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에 앞서 정보통신기기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컴퓨터 보유, 인터넷 가입 여부, 인터넷의 성능이나 그 편의성 등을 그 구체적인 지표들로 활용한다(유지열, 2002). 예컨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2008)의『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는 크게 세 가지 지표를 통해 접근성 수준을 측정했다. 첫째, 정보기기 보유정도로, 가구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본인 전용 PC 보유 여부, 무선인터넷 기기 보유여부, 가구 인터넷 접속여부 등을 측정한다. 둘째, 정보기기 근접성으로 개인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가능 여부와 이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셋째,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접속 방식을 측정한다. 정보접근성을 측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과 지수 구성 방식은 이러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정보격차지수>를 따를 것이다. 정부 승인 통계로서 공신력을 획득한 정보격차지수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정보격차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정보격차지수는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 사이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지수 체계이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b, 2010).

(2) 활용성(digital literacy)

정보의 활용성은 접근성에 대비하여 인터넷 정보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활용 수준과 그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인데,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008)를 참조하여 역량과 양·질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하위 차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할 것이다.

먼저 역량(online skills)은 개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능력을 지칭한다. 선행 연구들은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주요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으로 역량을 측정했으나(Correa, 2010; Hargittai & Hinnant, 2008), 본 연구는 이용자의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격차지수>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참조하여 운영 시스템, 워드 프로세서, 사무용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동영상 프로그램, 브라우저 등의 사용 능력을 포괄할 것이다.

양·질적 활용 수준(usage levels)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에 기대어 학업·공적 업무, 가사·개인 업무, 여가,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교제 등 일상생활의 주요 부문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활용의 양적 다양성(web-use diversity)과 질적 유용성(web utility)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양적 다양성은 얼마나 다양한 부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

이며 질적 유용성은 각 부문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얻고 있는 정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3) 참여(participation)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단계에서는 이용자들이 인터넷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보 생산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얼마나 연계(*connected*)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해돈(Haddon, 2000)은 정보지식기술을 이용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윈(Selwyn, 2004)은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 활동, 정치 활동, 사회적 활동, 소비 활동, 축적 활동 등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 이용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생산 활동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정치 활동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보호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집합적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활동은 가족, 친구,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 활동은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축적 활동은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본 등을 쌓아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렇듯 일부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건강 한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함양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문에서의 격차를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생산자로서의 활동에 얼마나 관여하는지와 함께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적, 정치적 연계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포괄할 것이다. 이는 셀윈(Selwyn, 2004)이 제안한 다섯 가지의 실천 영역 중 정치 활동과 사회 활동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용자의 사적 혹은 개인적 활동 영역 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적 활동 부문에 더 주목하려는 취지이다.

인터넷 이용의 효과 혹은 결과로서의 ‘참여’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사회자본이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협력적 연계망(networks), 규범(norms), 신뢰(trust)”로 정의될 수 있는데(Putnam, 1995, pp. 664-665), 개인적 수준에 적용될 경우 상호 신뢰와 타인에 대한 관용과 같은 태도 차원과 시민적, 정치적 연계성을 의미하는 행동 차원으로 나뉘질 수 있다(Brehm & Rhan, 1997; Paxton, 1999). 특히 사회자본의 행동적 차원은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을 아우르는 개념인데, 퍼트남(1995, p. 665)은 이를 “공동체적 삶(life of community)과의 연결(connections)”이라 정의했다. 주로 소비자운동, 각종 봉사활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을 의미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정치적 의사 표현과 관련된 활동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4)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간의 관계

지금까지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라는 세 측면을 정보격차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로 제시했다. 이들 세 차원은 상호적인 연관성을 보이는데,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입증해 왔다. 먼저 하지타이와 힌넨트(Hargittai & Hinnant, 2008)의 경우 접근성과 활용성 간의 인과적 관계를 탐구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가정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지와 인터넷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측정된 인터넷 자율성이 온라인 기술 혹은 인터넷 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며, 온라인 기술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자본축적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빙스톤과 헬스퍼(Livingstone & Helsper, 2007)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 기술이 높을수록 웹을 매개로 한 활동의 규모 혹은 양적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코레아(Correa, 2010)는 성별, 인종, 연령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험(internet experience), 특히 본인의 방에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지로 측정된 인터넷 근접성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활동, 즉 참여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참여 격차의 원인을 탐구한 하지타이와 왈레이크(Hargittai & Walejko, 2008)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아닌, 웹 기술이 참여 활동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노리스(Norris, 2001)는 소위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 개념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 격차를 논의했다. 이는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여 공적 세계(public life)에 관여하는 정도에서 간극이 존재함을 의미하는데, 노리스는 개인적 수준에서 경제적 자본이나 기술과 같은 문화적 자본의 차이가 이러한 참여 격차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자본은 접근성에, 문화적 자본은 활용성에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라 할 때, 정보접근성과 활용성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의 다양한 활용이 사회자본의 축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는데(Katz & Rice, 2002; Norris & Jones, 1998), 일부 선행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이 시민 참여(civic engagement)나 정치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탐구해 왔다(Shah, Kwak & Holbert, 2001). 인터넷 총 이용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엇갈리는 가운데, 선행 연구들은 구체적인 인터넷 이용 동기(정보적 혹은 오락적 이용)에 따라 사회자본 축적, 특히 시민적, 정치적 관여도에 대한 효과는 상이해질 수 있으며 특히 정보적 이용이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해 왔다(Norris & Jones, 1998; Shah, McLeod & Yoon, 2001).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보격차의 하위 차원들은 개념적, 경험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서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라는 정보격차의 세 차원이 상호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 역시 중요한 탐색의 대상이 된다. 또한 앞서 논의했던 정보격차의 주요 원인들, 즉 성, 연령, 교육 및 경제적 수준 등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 관

런 하위 차원별로 주요 격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들이 설정되었다.

- 연구문제 1: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의 주요 격차 요인들은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의 주요 격차 요인들과 정보 접근성은 인터넷 이용자의 활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의 주요 격차 요인들과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은 인터넷 이용자의 참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온라인 조사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이용 인구 내부의 정보 격차 현상을 탐구하려는 것이기에, 인터넷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조사를 그 연구 방법으로 택한 것이다.

1) 온라인 조사의 절차

최대 규모의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08년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그 대상으로 했으며, 동일 연령대의 일반 국민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지도록 성별, 연령별, 주거 지역별 할당 표집(quota sampling)을 실시했다. 할당 비율을 설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통계청 국민 전수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총 1,420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성비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1:1, 연령 비율은 10대 15.6%, 20대 20.7%, 30대 23.2%, 40대 27.0%, 50대 이상 18.4%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36.1세로 2005년 통계청 기준 평균 연령 35.6과 거의 유사했다. 주거 지역별 할당은 서울 20.7%, 인천 5.3%, 경기도 22.0%, 부산 7.4%, 경남 6.5%, 대구 5.2%, 경북 5.6%, 광주 3.0%, 전남 3.8%, 전북 3.8%, 대전 3.1%, 충남 4.0%, 충북 3.1%, 울산 2.2%, 강원 3.1%, 제주 1.1% 등으로 설정되었으며, 표본의 주거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7대 도시 거주가 47.9%, 중소도시 거주가 41.5%, 군·읍·면 거주가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면, 정보화 수준에서 선도 계층으로 평가되어 온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이 각각 3.4%, 5.6%, 23.0% 등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했으며 농어업 종사자는 전체의 0.9%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 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 졸업 이하가 1.5%, 중등 졸업 이하가 9.4%, 고등 졸업 이하가 22.7%, 전문대 졸·대학 중퇴·대학 재학에 해당하는 비율이 28.9%, 대학 졸업이 29.8%, 대학원 재학 이상이 7.6% 등이었다. 대졸 이상 인구 비율은 총 37.4%로 2005년 통계청 발표 기준 39.0%와 유사했다. 한편 소득 수준의 중위점은 250만원에서 299만원 사이로 나타나 통계청 발표 기준 2007년 1분기 평균 가구 총소득 325만에 비해 다소 낮았다.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은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변인들로 활용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에 따라 각 부문 별로 불균형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2) 주요 변인들의 측정

(1) 접근성 지수

〈정보격차지수〉 중 접근 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을 활용하였으며 그 산출 방식을 따라 가중치가 적용되어 본 연구의 접근성 지수가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관련 정보기기 보유정도, 인터넷 근접성(필요시 사용가능성 및 편의성), 컴퓨터와 인터넷의 성능 등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 총 8개의 측정 지표들이 사용되었다. 측정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7%가 컴퓨터를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8.7%의 사람들이 집 외의 공간에서 컴퓨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온라인 이용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듯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 가능성은 99.0%에 달했으며, 실제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보유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총 86.3%의 응답자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인터넷 사용가능성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로 측정되었다.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80.7%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18.9%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능은 컴퓨터의 기종과 인터넷 접속 방식으로 측정되었는데, 유효 응답자의 98.1% 이상이 펜티엄 III, IV급이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93%가 초고속망이나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① 정보기기 보유정도

먼저 컴퓨터 보유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2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배점했다. 가정 외 학교나 직장에서 본인 전용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노트북, 휴대폰, PDA 등 그 기기 유형에 상관없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 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점을,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을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지를 조사하여, 가능한 경우 2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배점했다(전체 배점 6점). 합산치를 배점인 6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함으로써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② 인터넷 근접성

인터넷 근접성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되었다. 먼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 2점, 그렇지 않을 경우 0점이 부여되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편의성에 따라 차별적인 점수가 부여되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0점, 어느 정도 떨어져있으나 사용은 가능한 경우 1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이 가능할 경우 2점이 배점되었다. 인터넷 사용에 소요되는 편의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중되었다(전체 배점 6점).

③ 인터넷 성능

컴퓨터의 성능이 펜티엄 III, IV급 이상인 경우 2점이, 펜티엄 II급 이상인 경우 1점이 부여되었다. 인터넷 접속방식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무선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2점이, 전화모뎀방식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1점이 부여되었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전체 배점 4점). <정보격차지수>가 설정한 가중치에 따라 접근성 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¹⁾

$$\text{접근성 지수} = (0.2 \cdot \text{정보기기보유}) + (0.6 \cdot \text{근접성}) + (0.2 \cdot \text{성능})$$

(2) 활용성

활용성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실질적인 양적, 질적 활용 정도로 평가되었다. 활용성의 세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요인으

1)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3년에 개발한 <정보격차지수>는 2004년부터 소외 계층들과 일반 국민 간의 격차의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되어 정부 승인 통계이다. 지수 체계와 가중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0)을 참조할 것.

로 나타나(아이겐 값 1.0 이상), 세 하위 차원들 간의 판별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를 입증했다.

① 활용 역량(online skills)

활용성은 두 개의 하위 차원으로 나뉘어졌으며, 먼저 역량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운영 시스템, 워드 프로세서, 사무용 프로그램,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동영상 프로그램, 브라우저 사용 등 7개 항목에서의 사용 능력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 이용자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다룰 줄 모름”(0점)에서 “고급 수준”(3점) 사이에서 평가하였다. 7개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883으로 산출되었으며 역량의 평균값은 1.61점(s.d. = .64)으로 초급과 중급 사이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해 7개 항목 점수의 총합을 총 배점인 21점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였다.

② 활용의 양·질적 수준

가. 인터넷 활용의 양적 다양성(web-use diversity)

먼저 정보적 이용으로 학업·업무 관련 정보 검색과 교육 활동을 위한 이용량을 측정하였으며, 둘째 여가 활용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뉴스 읽기, 방송·영화·음악 감상, 온라인 게임, UCC 감상,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이용량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거래와 행정 업무 목적의 일환인 인터넷 बैं킹, 쇼핑, 행정 민원을 위한 이용량을 측정하였다. 총 10개의 항목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씩만 사용하는 경우에 0점을, 자주 사용하거나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 1점을 부과하였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행되는 활동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하지타이(Hargittai,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방법으로, 하지타이는 총 25개의 웹 기반 활동의 빈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일주일에 1회 이상 해당 활동을 했을 경우 1점을 부과하고 그 이하는 0점을 부과하여 소위 웹 이용 다양성 점수(web-use diversity score)를 구축했다. 총 10개의 이원적 지표들(binary indicators) 간의 신뢰도(Cronbach alpha)는 .694로 측정되었다. 총 배점은 10점이었으며, 다른 측정 지표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나. 인터넷 활용의 질적 유용성(web utility)

학업·공적 업무, 가사·개인 용무, 여가 활동, 사회활동, 의사소통 및 교제 등 5개 영역에서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해당 영역에서 인터넷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경우 0점을, “매우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경우 3점을 부여했다. 다섯 항목들 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는 .799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3) 참여

참여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따라 정보 생산 활동, 시민적 연계 활동, 그리고 정치적 연계 활동 등 세 개의 하위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모든 지표들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세 개의 유의미한 요인으로 묶여(아이겐 값 1.0이상) 하위 차원들 간의 유의미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정보 생산 활동(contents creating activities)

선행 연구들은 ‘참여’를 인터넷 정보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활동을 넘어 생산자로서의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활용했다. 앞서 제시된 코레아(Correa, 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지표들 중 일부는 인터넷 정보나 서비스의 이용 정도, 즉 활용성에 가까웠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그 중 생산

자로서의 활동에 더 밀접히 연관된 지표들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 기사에 댓글 달기, 각종 게시판에 글 게시, 게시판에 동영상이나 사진 게시, 블로그 제작 및 운영, 개인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위키피디아 지식 생산 참여, 네이버 지식인 참여 등으로 '정보 생산 활동'이 측정되었다. 총 7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36으로 산출되었다. 4점 척도로서 "전혀 해 본 적이 없다"에 0점을, "거의 매일 한다"에 3점을 부여한 후, 그 합산치를 총 배점인 21점으로 나누어 100점을 곱하였다.

② 시민적 연계 활동(civic networking activities)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적 실천 중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잠재력에 기여하는 것은 결속적(bonding)이기보다 교량적(bridging)인 네트워크 활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Norris, 2002),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시민적 연계 활동 중 교량적인 성격을 띠는 소비자, 환경, 국제구호, 빈민구호 및 각종 봉사단체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관련된 활동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0점, 가끔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 1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을 경우에 2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 3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다섯 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39로 산출되었으며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③ 정치적 연계활동(political networking activities)

사이버 공간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의 정치적 실천의 경우,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온라인 서명, 사이트 항의 방문,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전달, 특정정당·단체·언론에 대한 반대 운동,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오프라인 집회·시위 참여 등의 6가지 항목을 측정 지표들로 고려했다(민영·주익현, 200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표 1. 주요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 값과 상관관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접근성 지수		0	100	93.76	8.69			
활용성	역량	0	100	53.64	21.36			
	양적 다양성	0	100	43.87	24.19			
	질적 유용성	0	100	75.41	15.53			
참여	정보 생산	0	100	25.31	18.57			
	시민적 연계	0	66.67	5.74	10.67			
	정치적 연계	0	100	14.87	17.66			
		접근성	역량	다양성	유용성	정보생산	시민연계	정치연계
접근성		1,000						
역량		.157**	1,000					
양적 다양성		.139***	.460***	1,000				
질적 유용성		.139***	.457***	.440***	1,000			
정보 생산		.022	.499***	.530**	.341***	1,000		
시민 연계		.079**	.154***	.209***	.095	.339***	1,000	
정치 연계		.048	.326***	.368***	.234	.569***	.447***	1,000

2009b).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전혀 없을 경우 0점을, 가끔 참여하는 경우 1점, 그리고 자주 참여하는 경우 2점을 부여했다. 총 6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20으로 산출되었으며 역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인구 내부의 접근성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들 사이의 편차도 작았다. 그러나 활용성과 참여 수준은 접근성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참여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주요 정보 불평등 요인들로 지목되어 온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이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정보격차의 세 차원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격차’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불균형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요 격차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주요 격차 요인들을 통제한 가운데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 수준 간의 관계 역시 탐색될 것이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1) 주요 격차 요인들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1)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성, 연령, 교육, 소득 수준 등 주요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격차요인들이 접근성 및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독립	접근성	활용성				
			활용 역량		양·질적 활용		
					양적 다양성		질적 유용성
성별 (여성)	.061*	-.131***	-.140***	-.008	-.016	.001	-.007
연령	.003	-.458***	-.458***	-.387***	-.387***	.239***	-.240***
학력	.112***	.205***	.186***	.176***	.161***	.184***	.169***
소득	.104**	.099***	.082**	.028	.014	-.013	-.001
접근성 △R ² (%)			.163*** 2,6***		.131*** 1,7***		.135*** 2,7***
Adj. R ² (%)		2,7***	27,0***		17,3***		9,2***

주: 셀 안의 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N = 1124; *p < .05, **p < .01; *** p < .001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여 고학력 혹은 고소득 이용자일수록 정보기기의 소유 정도, 인터넷 근접성 및 성 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정보격차 연구 에서와는 달리 온라인 인구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접근 성 수준을 나타냈다. 인터넷 이용 인구의 접근성 수준은 연령에 따른 불 균형 구조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격차 요인들의 접근성에 대한 설 명력이 3% 이내로 나타나,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 서는 접근성 수준에 대한 전통적 요인들의 예측력이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주요 격차 요인들과 접근성이 활용성에 미치는 영향(연구문제 2)

주요 격차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활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을 분석하는 한편, 접근성이 역량 및 양적, 질적 활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접근성과 활용성 사이의 단선적인 인과 관계를 입증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 접근성이라 는 물리적, 환경적 토대가 활용성 부문의 정보화 수준 혹은 격차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먼저 활용 역량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2〉), 전체 모델설 명력이 접근성 모델에 비해 월등히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27.0%). 즉 온라인 인구 내에서 성, 연령, 소득 및 학력 수준 등이 접근성을 결정하는 정도는 미약하나, 실질적으로 정보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 과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모든 격차 요인들이 역량 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냄으로써 성, 연령, 교육, 소득 수준 모두가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서 역량 격차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특히 연령의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용자들이 정보기기를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격하 게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일수록,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역량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러한 양상은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

텔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접근성은 역량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상승시켰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보여 주었다. 즉 인터넷에 대한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이 실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이용의 자율성이 온라인 기술의 습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하지타이와 히넨트(Hargittai & Hinnant, 200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을 실제 생활에서 양적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인터넷의 양적, 질적 활용 수준과 관련된 모델 설명력은 역량 모델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접근성 모델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았다. 먼저 '얼마나 다양한 부문에서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양적 다양성에는 연령과 교육 수준이라는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양적인 다양성은 연령과 학력에 따른 격차 구조를 보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이 높아졌다.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에서도 연령과 교육 수준의 효과는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며, 접근성 또한 양적 다양성에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보기기의 소유 정도, 인터넷 근접성 및 성능이 높아질수록 인터넷의 양적 활용 범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생활의 각 부문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질적 유용성과 관련해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주요 격차 요인들 중 연령과 교육 수준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지각된 인터넷 유용성은 낮았다. 이 두 요인의 효과는 접근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접근성의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물리적, 환경적 토대가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3) 주요 격차 요인들과 접근성 및 활용성이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연구 문제 3)

본 연구는 인터넷 활용을 통한 결과이자 효과로서 이용자가 정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자본 축적활동에 관여하는 정도를 정보화의 새로운 차원으로 고려했으며, 이를 참여라고 명명했다. <표 3>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게시판에 글, 동영상,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고 위키피디아나 네이버 지식인 등을 통해 집단지성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측정된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해서 일부 격차 요인들과 활용성 수준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성별을 제외한 세 격차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

표 3. 접근성과 활용성이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참여					
		정보 생산 활동		시민적 연계 활동		정치적 연계 활동	
성별 (여성)		-.089**	-.043	.019	.047	-.041	-.009
연령		-.388***	-.105***	.035	.180***	-.158***	.052
학력		-.018	-.138***	.061	.005	.001	-.087**
소득		-.023	-.051*	.013	-.005	.043	.022
접근성		.069*	-.032	.063*	.016	0.60*	-.014
$\Delta R^2(\%)$		0.5		0.4		0.3	
활용성							
활용 역량			.279***		.179***		.198***
양적 다양성			.369***		.196***		.296***
질적 유용성			.053*		-.055		.016
$\Delta R^2(\%)$			24.2***		6.3***		13.5***
Adj. $R^2(\%)$		40.3***		6.8***		15.6***	

주: 셀 안의 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N = 1124; *p < .05, **p < .01; *** p < .001

미한 직접 효과를 보였는데, 흥미롭게도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역시 정보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이들 요인들의 설명력은 활용성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으로 세 개의 활용성 변인들이 모두 정보 생산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는데, 특히 활용 역량 및 양적 다양성의 효과가 현저하게 높았다. 즉,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 검색, 의사소통, 여가, 거래 등 인터넷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수록 이용자의 정보 생산 활동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스스로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통해 얻는 유용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보 생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반면 접근성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콘텐츠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에서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이 활용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음을 상기할 때, 참여에 대한 격차 요인들의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간접적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컨대, 교육 수준은 역량, 양적 다양성 및 질적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정보 생산 활동’에 간접적인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학력이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직접 효과는 긍정적인 간접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²⁾ 이와 유사한 원리로 접근성 역시 활용성에 대한 효과를 매개로 ‘정보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 역시 일부 격차 요인들이나 활용성 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인터넷을 매개로 교량적인 시민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연령

2) 학력의 순효과는 (표 2)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와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학력의 순효과는 $-.018$ 로 나타나 거의 0에 가까워졌다($.189 * .279$) + $(.161 * .369)$ + $(.169 * .053)$ - $0.138 = -.018$.

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용자의 정보기기 활용 역량 및 인터넷 활용의 양적 다양성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접근성의 직접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의 긍정적인 직접 효과는 활용성을 매개로 한 부정적인 간접 효과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즉 연령은 활용성을 나타내는 세 변인 모두에 대해 강한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을 매개로 시민적 연계 활동에 부정적인 간접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접근성 역시 활용 역량과 양적 다양성에 대한 효과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시민적 연계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정치적 연계 활동 역시 활용성 변인들, 특히 역량 및 활용의 양적 다양성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다. 격차 요인들 중에는 학력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저학력 이용자일수록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치적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활용성 수준을 증가시키는 학력의 효과는 간접적으로 이용자의 정치적 연계 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접근성 역시 정치적 참여 수준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활용성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참여' 부문에서의 정보격차는 전통적인 격차 요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이용자의 활용성 수준을 매개로 구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 내부의 정보격차를 접근성, 활용성, 그리고 참여의 차원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의 불평등 요인들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이는 가진 자(haves)와 가

지지 못한 자(have-nots) 사이의 격차를 넘어, 이미 접근이 가능하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 혹은 불균형 구조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격차'라는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연속체 관점에 기대어, 각 하위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자가 성취하고 있는 정보화 수준이 전통적인 격차 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전국 규모의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예상했던 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전통적인 격차 요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나, 여전히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인터넷 이용의 근접성과 편의성이 차별화되었다. 추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접근성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들 중 정보기기 보유정도에 대한 격차 요인들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거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 기기 보유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나 그 성능 역시 학력과 소득 수준에 따라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접근성 지수는 100점 기준으로 평균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접근성의 차이가 실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을 내포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학문적, 정책적 노력들이 집약된 결과 인터넷 이용 인구가 거의 80%를 육박하는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정보통신부·인터넷진흥원, 2008).

이에 반해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서 가장 불균등한 구조를 노정할 부문은 활용성 부문이었다. 즉 물리적, 환경적 접근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후에도 실제로 그것을 이용할 능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으며 양적, 질적으로 어느 정도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는 이용자 간 차별성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접근성에 비해 역량이나 양적, 질적 활용 정도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으며, 성, 연령, 교육 및 소득 수준 등 구조적인 요인들

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역량에 대한 전통적인 격차 요인들의 상대적인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성, 연령, 교육, 소득 모두 역량의 분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 중에서도 연령에 따른 활용 역량의 분포가 가장 왜곡되어 있어, 연령이 높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상대적인 결핍이 성별, 교육이나 소득 수준의 효과와 별개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인터넷 이용의 양적 다양성이나 질적 유용성에서도 연령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높은 연령 계층의 인터넷 이용은 그 범위나 깊이에서 젊은 계층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육 수준 역시 인터넷 활용의 양적 다양성이나 질적 유용성을 유의미하게 제한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강진숙(2002)이 논의한 것처럼 교육과 같은 문화자본이 활용성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용자의 정보기기 접근성 역시 활용성 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 접근성이라는 하드웨어 환경이 여전히 인터넷의 실질적 활용과 향유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의 수준은 계층 간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적 상호작용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준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시민적, 정치적 연계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보다는 높았는데, 무엇보다 활용성 변인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즉 인터넷 활용의 역량, 다양성 및 지각된 유용성이 높을수록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참여 수준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주요 격차 요인들의 직접 효과와 활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했을 때, 연령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올리거나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활동은 현저하게 저조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 축적이라 할 수 있는 시민적, 정치적

연계 활동에 대해서도 활용성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져서 물리적, 환경적 접근성보다는 인터넷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 정도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생산 활동이나 자본축적활동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하지타이와 왈레이코(Hargittai & Walejko, 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이용자 내부에 활용성과 관련된 격차 혹은 불평등 구조가 가장 심각하게 존재하는 만큼,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주된 방향은 여성, 중장년층, 저학력 및 저소득층에서 그 활용 역량을 배양하고 인터넷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범위 및 실질적인 유용성을 제고하는 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연령 계층의 상대적 소외가 심각한 만큼 이 계층의 활용 능력 및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폭의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조작 능력에 대해 평생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연령 계층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욕구, 커뮤니케이션 욕구, 오락 욕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을 양적으로 활성화하고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효능감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정보의 생산과 공유에 참여하는 정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특별한 계층의 소외를 해결하고 다른 계층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에 앞서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이러한 참여적 실천을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해돈(Haddon, 2000)이나 셀윈(Selwyn, 2004)과 같은 학자들이 적시한 대로 정보지식기술을 매개로 한 궁극적인 결과는 개인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정보격차의 새로운 차원으로서 '참여'라는 부문에 주목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참여를 주로 정보 생산 활동으로 개념화하며 젊은 인터넷 이용 계층 내에서도 참여 격차가 존재함을 입증해 왔다(Correa,

2010; Hargittai & Hinnant, 2008; Hargittai, 2010). 정보격차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 및 효과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때, 향후 연구들은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본의 축적에서 이용자들 간에 어떠한 격차 혹은 불평등 구조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접근, 활용, 그리고 참여라는 세 개념을 통해 정보 네트워크 이용의 물리적·환경적 토대, 실질적 활용 능력과 그 구체적 양상, 그리고 정보 네트워크 이용을 통한 효과와 결과의 차원까지 포괄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 내부의 정보격차 혹은 불평등 현상을 총체적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정보격차의 확장된 의미와 새로운 차원들에 주목하며 ‘격차’라는 개념이 함축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자 했으나, 분석 과정에서 ‘격차’라는 개념의 제한적인 틀에 갇힌 것도 사실이다. 개인들의 정보화 수준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면적인 차별성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격차’에 비해 연속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불평등(digital inequality) 혹은 정보 불균형(digital disparities) 등의 개념을 더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DiMaggio et al., 2004).

방법론 측면에서도 제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패널은 흔히 매우 적극적인 인터넷 이용자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 전체에게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에 개발되어 그 타당성이 검증된 정보화 관련 지수들을 일부 활용하여 세 가지 하위 차원에서의 정보격차를 탐색했다. 특히 〈정보격차지수〉는 일반 국민과 취약 계층 간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공신력 있는 지수 체계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후속 연구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화 수준을 보다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수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수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주로 정보와 서비스의 소비자로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과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담아내고 그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즉 웹 2.0 혹은 웹 3.0 환경에서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활동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합적 지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 강진숙 (2002). 인터넷 네트워크의 정보격차 현황과 대응정책 연구: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5~45.
- 김문조·김종길 (2002). 정보격차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36권 4호, 123~155.
- 김문조·최두진 (2007). 『정보문화지수체계(DCI : Digital Culture Index) 개발연구』 (연구보고 07-08).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영미 (2001). 인터넷과 여성, 그리고 정보격차. 『한국지역정보학회지』, 4권 제1호, 65~81.
- 김주찬·민병익 (2006).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권 1호, 115~142.
- 민영·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적 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90~217.
- 박해광 (2003). 정보격차의 새로운 경향. 『경제와 사회』, 59호, 78~102.
- 서진완 (2000).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 측정. 『한국행정학보』, 34권 1호, 309~329.
- 우병현 (2006). 웹2.0 시대와 영상미디어의 미래: 참여·공유·개방 가치 구현 가능한 차세대 웹. 『신문과 방송』, 430호, 12~16.
- 유지열 (2002).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접근 연구. 『한국사회학』, 36권 1호, 223~246.
-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4). 『2003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
- 정보통신부·인터넷 진흥원 (2008). 『2007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
- 조정문 (2001).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례. 『행정과 전산』, 23권 1호, 44~51.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 『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조사보고 07-10).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2008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조사보고 08-04).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a). 『2008 정보문화 지수 실태조사』(조사보고 08-09).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9b). 『2009 정보격차 정보문화 백서』.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0). 『2010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조사보고 10-02).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황용석·윤선희·이원섭·안계현 (2006). 『2006 한국의 인터넷 신문』. 서울: 한국언론재단.
- 황진구·유지열 (2007).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패와 대책』(연구보고 07-R08-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arzilai-Nahon, K. (2006). Gaps and bits: Conceptualizing measurements for digital divide. *The Information Society*, 22(5), 269~278.
- Brehm, J., & Rahn, W. M.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4.
- Castells, M. (2000)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Volume I—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 Oxford: Blackwell.
- Compaine, B. M. (2001).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Boston, MA: The MIT Press.
- Correa, T. (2010). The participation divide among “online experts”: Experience, skills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web content cre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 71-92.
- DiMaggio, P., & Hargittai, E. (2001). *From the “digital divide” to digital inequality: Studying Internet use as penetration increases*. Princeton, NJ: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University Working Paper 15.
- DiMaggio, P., Hargittai, E., Celeste, C., & Shafer, S. (2004). Digital inequality: From unequal access to differentiated use. In K. Neckerman (ed.), *Social inequality* (pp. 355-40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addon, L. (2000). Social exclus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essons from studies of single parents and the young

- elderly. *New Media & Society*, 2(4), 387~408.
- Hargittai, E. (2010). Digital Na(t)ives? Variation in internet skills and uses among members of the “net generation.” *Sociological Inquiry*, 80(1), 92~113.
- Hargittai, E. (2002). Second-level digital divide: Differences in people’s online skills. *First Monday*, 7(4). Available: http://www.firstmonday.org/issues/issue7_4/hargittai
- Hargittai, E., & Hinnant, A. (2008). Digital inequality: Differences in young adults’ use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Research*, 35(5), 602~621.
- Hargittai, E., & Walejko, G. (2008). The participation divide: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digital ag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1(2), 239~256.
- Hargittai, E., & Shafer, S. (2006). Differences in actual and perceived online skills: The role of gender. *Social Science Quarterly*, 87(2), 432~448.
- Jones, S., & Fox, S. (2009). *Generations online in 2009*.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Jung, J., Qiu, J., & Kim, Y. C. (2001). Internet connectedness and inequality: Beyond the divide. *Communication Research*, 28(4), 507~535.
- Katz, J. E., & Rice, R. E. (2002). *Social consequences of Internet use: Access, involvement and intera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Kiesler, S., Zdaniuk, B., Lundmark, V., & Kraut, R. (2000). Troubles with the Internet: The dynamics of help at home. *Human-Computer Interaction*, 15(4), 323-351.
- Kwak, N. (1999). Revisiting the knowledge gap hypothesis: Education, motivation, and media use. *Communication Research*, 26(4), 385~413.
- Livingstone, S. (2003). Children’s use of the Internet: Reflections on the emerging research agenda. *New Media & Society*, 5(2), 147~167.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7). Gradations in digital inclusion: Children, young people and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9(4), 671-696.
- Norris, P. (2001)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ris, P. (2002). The bridging and bonding role of online communities. The bridging and bonding role of online communitie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7, 3~13.

- Norris, P., & Jones, P. (1998). Virtual democracy.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3(2), 1~4.
- Papacharissi, Z. (2004). Democracy online: Civility, politeness, and the democratic potential of online political discussion groups. *New Media & Society*, 6(2), 259~284.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utnam, R. D.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8(4), 664~683.
- Selwyn, N. (2004). Reconsidering political and popular understandings of the digital divide. *New Media & Society*, 6(3) 341-362
- Shah, D., Kwak, N., & Holbert, R.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 141~162.
- Tichenor, P. J.,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of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 159~170.

최초 투고일 • 2011. 01. 09
논문 수정일 • 2011. 02. 08
게재 확정일 • 2011. 02. 09